2012. 10.

(2012. 10. 3.(수) ~ 10. 8.(월) / 4박6일)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1 목 적 1
2 현 황 1
3 내 용 1
4 주요일정 2
5 연수자 명단 3

제2장 방문국 주요현황 4

1 말레이시아 4
2 싱가포르 7

제3장 견학 및 방문기 4

1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쿠알라룸프르 시청) 10
2 싱가포르 (아동복지시설, 바이오폴리스) 14
3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 16
4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제도 24
5 싱가포르의 환경정책 29
6 싱가포르의 사회복지제도 38

제4장 연수후기 44

□ 동남아 연수를 마치며 (고영규 환경복지위원장) 44

제1장 연수개요

1 목 적

○ 환경과 복지를 주제로 아시아권에서 우수정책을 펼치고 있는 동남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진모범사례 현장을 탐방하여

○ 지역을 새롭게 상상하고 지역적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현 황

○ 연 수 자 : 16명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7, 공무원 9

○ 연수지역 : 동남아 2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연수기간 : 2012. 10. 3. ~ 2012. 10. 8. (4박 6일)

3 내 용

○ 자연친화적 도시를 조성한 말레이시아 신 행정수도(푸트라자야) 방문

○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수도(쿠알라룸푸르) 방문 간담회 실시

○ 싱가포르 복지시설(아동) 방문 운영형태 비교 분석

○ 싱가포르 바이오산업의 핵심 장소인 바이오폴리스 견학

○ 기타 친환경·복지정책의 우수사례 및 생태도시 정책 파악

4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 고
2012. 10. 3. (수)	전 주 ⇒ 인 천 ⇒ 말레이시아	○ 도의회 집결 후 출발 (10:00) / **중식** ○ 인천 국제공항 집결·출발 (16:30) ○ 쿠알라룸푸르 도착 (21:55)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1일차
10. 4. (목)	쿠알라룸푸르	○ 호텔 조식 후 o **푸트라자야 시청 방문 간담회 실시** (부서 책임자와 미팅을 통한 사례수집) o **신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견학** (총리공관, 국회의사당 등 관공서 관람 및 도시조성 관리실태 파악)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2일차
10. 5. (금)	쿠알라룸푸르 ⇒ 말 레 카	○ 호텔 조식 후 o **쿠알라룸푸르 시청 방문 간담회 실시** o **쾌적한 도심속 공원 KLCC공원 및**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관람** ○ 말레카로 이동(육로) / 3시간 소요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3일차
10. 6. (토)	말 레 카 ⇒ 싱가포르	○ 호텔 조식 후 o **말레카 시내 역사유물 관람** (독립기념관, 교회, 성당, 사원 등) ○ 싱가포르 이동(육로) / 3시간 소요 ○ 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4일차
10. 7. (일)	싱가포르	○ 호텔 조식 후 o **사회복지시설(아동) 방문** (시설 견학 및 운영형태 비교분석) o **복합연구단지 바이오폴리스 견학** ○ 석식 후 창이공항으로 이동	5일차
10. 8. (월)	싱가포르 ⇒ 인천, 전주	○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출발 (01:1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08:25) ○ 전주 도착 (12:00)	6일차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영문)	비 고
도 의 회 환경복지 위 원 회	위 원 장	고 영 규 (GO YOUNGKYU)	
	간 사	김 종 담 (KIM JONGDAM)	
	위 원	강 영 수 (KANG YOUNGSOO)	
	위 원	김 광 수 (KIM KWANGSOO)	
	위 원	문 면 호 (MOON MYEONHO)	
	위 원	배 승 철 (BAE SEUNGCHUL)	
	위 원	이 현 주 (LEE HYUNJU)	
도의회 사무처 직 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 삼 종 (MO SAMJONG)	
	직 원	노 창 환 (NOH CHANGHWAN)	
	직 원	신 동 호 (SHIN DONGHO)	
	직 원	최 정 임 (CHOI JUNGNIM)	
	정책2팀장	공 병 원 (KONG BYUNGWON)	
	직 원	김 태 균 (KIM TAEKYUN)	
	총무담당관	원 종 율 (WON JONGEUL)	
	직 원	이 정 로 (LEE JEONGRO)	운영전문 위 원 실
	직 원	윤 형 석 (YOON HYUNGSUK)	운영전문 위 원 실

제2장 방문국 주요현황

1 말레이시아 (Malaysia)

가. 일반사항

○ 인　　구 : 2,825만명(10년)
○ 면　　적 : 32.9만㎢(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 종　　교 : 이슬람교(국교,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교, 힌두교
○ 언　　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 시　　차 : 우리시간 -1

나. 정치현황

○ 정　　체 : 선임제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우위)
○ 주요 지도자
- 국　　왕 : 압둘 하림(2011.12 취임)　- 총　　리 : 나집(2009.4 제6대 총리 취임)
- 부 총 리 : 무히딘(2009.4 취임)　- 외무장관 : 아니파(2009.4 취임)

다.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2,787억 불
○ 1인당 GDP : 9,700불
○ GDP성장률 : 5.1%
○ 교　역 : 4,672억 불
- 수출 : 2,572억 불　- 수입 : 2,100억 불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0.2.23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상주대사관 설치(62.5)　*현 이용준 대사 10.8 부임
○ 수출입동향 및 주요품목
- 교역액 : 167억 불

- 수출 : 63억 불 (컴퓨터, 반도체, 선박, 철강판, 자동차)
- 수입 : 105억 불 (LNG, 원유, 반도체 부품, 목재류)

○ 양국간 투자현황

- 대말 투자 : 18억 불 / 50.2억 불
- 대한 투자 : 1.1억 불/71.5억 불

○ 주요인사 교류

- 97.12 고건 총리 방문(ASEAN+3 참석)
- 98.11 김대중 대통령 방문(APEC 참석)
- 00.10 마하티르 총리 방한(ASEM III)
- 01.5 살라후딘 11대 국왕 방한
- 02.5 마하티르 총리 공식방한
- 03.10 ASEAN+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발리)
- 04.8 압둘라 총리 공식 방한
- 05.11 압둘라 총리 방한(APEC 참석)
- 05.12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 07.3 나집 부총리 방한
- 09.6 나집 총리 방한(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
- 10.7 무히딘 부총리 방한
- 10.12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11.4 나집 총리 공식방한
- 11.7 미잔 국왕 국빈방한

○ 인적교류(2011) : 방말 한국인 302,845명 / 방한 말레이시아인 156,281명

○ 교민(2011) : 약 15,000명

마. 북한과의 관계

○ 73.6 외교관계 수립
○ 73.12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설치

○ 04.3 주북한 말레이시아대사관 설치

○ 07.10 김영일 북한 총리 말레이시아 방문

바. 말레이시아 주요 정세

○ **최근 동향**

- 금번 제13대 총선 정국과 관련하여 Najib 총리와 집권연정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상실한 2/3 의석 탈환을, 야권연대는 의석 과반이상 획득으로 정치사상 최초의 정권교체 실현을 목적으로 금년초 이래 득표 활동에 전력투구
- 선거 전략으로 여·야 공히 민생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야권 지도자인 Anwar 의원의 이스라엘 안보 옹호 발언(The Wall Street Journal지 1.26 인터뷰) 및 과거 전력,

그리고 야권 3당간 이념적 대립 측면을, 야권은 Cow Scandal, 서민 경제 악화, 민주주의 쟁취 등을 상대 진영의 문제점으로 부각시키며 공방

- 최근 여·야 대립의 쟁점은 선거법 개혁문제로서, 여권은 지난 4.3 의회가 채택한 선거개혁특별소위 보고서를 입법에 점진 반영하자는 입장이며, 야권은 유권자 명부제도 개선 등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혁하고 이를 금번 총선부터 실시하자는 자세

○ **총선 시기**

- 언론의 총선 기사 빈도와 규모, 정치인들의 분주한 전국 순회 집회, 곳곳에 부착된 당 깃발과 포스터 등에 비추어 분명 총선이 임박한 것으로 관찰되나, 구체적 총선 시기에 대해서는 6월은 물론 금년 하반기, 심지어 내년 개최설도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예측, 전망이 어려운 상황
- 총선 시기가 묘연한 이유로는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Najib 총리가 금번 총선에서 2/3 의석을 만회해야 하나 현 정국 판세가 기대만큼 좋지 않아 최적 총선 시기를 두고 고심과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관측

○ **총선 전망**

- 금번 총선 특징은 야권이 대중 카리스마를 지닌 Anwar 의원을 야권 지도자로 추대한 가운데 단일 세력을 구축하고 연대와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총선 정국이 예전과 달리 여권과 야권이라는 양강 구도가 선명히 형성된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집권연정에게는 큰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금번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① Najib 총리가 취임 이래 역점 추진해온 복지 시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 ② Anwar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계 청사진에 대한 국민 호응도 ③ 야권연대 단합과 결속의 지속성 여부, ③ 집권연정 정책인 Bumiputra 반대와 민주화를 주장하며 반여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계의 야권 지지 강도, ④ 집권연정 인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 추이 등이 지적
- Najib 총리는 금번 총선에서 2/3 의석 탈환을, 차선으로 2008년 총선과 비슷한 성적(이 경우 나집 총리는 높은 국민지지도와 당내 견고한 위상 감안시 Abdullah 전 총리 점철은 밟지 않을 것으로 관측)을 기대하고 있어 보이나, 단순과반 의석을 겨우 상회할 경우 집권연정은 극심한 내홍과 내분에 빠져들 가능성 상존

2 싱가포르 (Singpore)

가. 일반사항

○ 인　　구 : 508만명('10)
○ 면　　적 : 710㎢(서울시 605.5㎢)
○ 민족구성 : 중국계(74.1%), 말레이계(13.4%),인도계(9.2%), 기타(3.3%)
○ 종　　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시　　차 : 우리시간 -1

나.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임기 5년의 단원제(직선 87석, 지명 9석, 무선거구3석)
- 2011년 5월 7일 총선 결과, 여당(인민행동당, PAP) 81석, 야당(노동자당) 6석 차지

○ 주요 지도자
- 대 통 령 : 토니 탄(Tony Tan, 2011.9 취임)
- 총　　리 : 리셴룽(Lee Hsien Loong, 2004.8 취임)
- 외교장관 : 샨무감(K.Shanmugam, 2011.5 취임, 법무장관 겸임)

다.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 : 2,598억 불
○ 1인당 GDP : 49,270불
○ 경제성장률 : 4.9%
○ 교　역 : 7,779억 불
- 수　출 : 4,119억 불　　- 수　입 : 3,660억 불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75.8.8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현 오준 대사 10.3 부임)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2011, 한국 기준)

- 교역액 : 298억 불
- 수 출 : 208억 불(반도체,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부품, 무선통신기기)
- 수 입 : 897억 불(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투자 현황(2011) * 165건, 8.7억 불

○ 주요인사 교류 현황

- 00.11 김대중 대통령 방문(APEC)
- 02.4 나단 대통령 국빈방한
- 03.10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 05.11 리센룽 총리 부산 APEC 계기 방한
- 06.5 리콴유 고문장관 방한
- 06.7 반기문 외교장관 공식방문
- 07.11 노무현 대통령 ASEAN+3 계기 방문
- 08.2 고촉통 선임장관 방한
- 08.7 유명환 외교장관 공식방문
- 09.6 리센룽 총리 공식방한
- 09.11 이명박 대통령 APEC 계기 방문
- 10.6 이명박 대통령 공식방문(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 10.11 리센룽 총리 G20 정상회의 계기 방한

○ 동포현황(2011) : 약 14,000명

○ 인적교류(2011)

- 싱가포르 방문 한국인 : 약 42만 명
- 한국 방문 싱가포르인 : 약 13만 명

마. 북한과의 관계 : '75.11.8 수교

바. 싱가포르 주요 정세

○ **인민행동당(PAP)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정치체제 유지**

-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 PAP)은 1959년 이래 의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장기 집권 유지
  - ▪ 리콴유 전 총리는 '인민행동당은 곧 정부이고, 정부는 곧 싱가포르'라고 언급
-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인민행동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일반 대중의 현실적 요구(주택, 취업, 사회복지 등)를 적기에 파악,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전폭적인 국민적 신뢰 확보
  - ▪ 과도한 정치과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의 단점 해소
-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구조 및 언론정책 도입
  - ▪ 싱가포르의 선거구는 의원 2인이상 선출의 집단선거구 및 1인 선출의 단독선거구(Single-seat Wards)로 구분되나, 집단선거구(GRC)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에서 1개 GRC 선출의원수(5-6명)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어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

▪ 언론출판법(Newspaper and Printing Press Act)에 따라 신문 및 방송분야를 정부에서 관장함으로써 통제된 언론정책 실시

○ 최근 정치 정세

- 2006년 5월 6일 총선 실시 : 직선의석 84석 중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82석을 차지(득표율 : 66.6%)

▪ 리센룽 총리가 2004년 8월 집권한 이후 첫 번째 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압승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 평가

○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싱가포르 정세 전망

- 리센룽 총리는 2009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외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경제성장률이 1.5%로 집계되었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위기 극복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 조치 등을 통해 현 경제 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이러한 경제위기가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가안정을 도모해 온 싱가포르에 커다란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정치적 리더십 쇄신 추구

- 리센룽 총리는 2009년 3월 26일 집권 이후 두 번째 개각을 단행, 지속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쇄신하는 한편,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훈련

▪ Teo Chee Hean 국방장관의 부총리 겸임 임명, Jayakumar 부총리를 선임장관에 임명(내각 서열 4위), Lim Hwee Hua 총리실 장관(최초의 여성장관) 임명, Sam Tan 무역산업부/정보통신예술부 정무차관 신규 등용 등

- 정부와 공무원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하에 최고 엘리트를 핵심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공무원 중 엘리트 집단(약 350명 규모)이 국가발전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시스템도 능력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엘리트를 걸러내기 위한 방식 도입

제3장 견학 및 방문기

1 말레이시아(Malaysia)

○ 신행정수도 푸트라자야(Putrajaya) 시청

- 일　　시 : 2012. 10. 4.(목) 10:00~
- 장　　소 : 푸트라자야 시청 회의실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 조성 현황 및 환경정책 청취 및 간담
- 도시소개

▪ 1957년 11개 주가 통합한 말라야 연방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정하고, 헌법 154조에 '의회가 다른 곳을 정할 때까지 쿠알라룸푸르가 연방의 수도다'라고 명시함. 91년 들어 마하티르 수상은 '비전 2020'이라는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겨 놓되 행정,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할 신행정수도로의 이전 작업에 착수함.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임.

▪ 1995년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 짓고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9년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곳이 바로 푸트라 자야임. 말레이시아의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이며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알려진 푸트라자야는 21세기 말레이시아인들의 이상형의 도시가 되기 위해 현재도 건설중인 상태임.

▪ 1만1천3백20에이커의 면적의 푸트라자야시는 대략 6만7천개의 단위와 33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은 초현대식 위락 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1996년 정부청사, 공공위락시설, 사회기반시설, 주거지역, 습지대, 공원등의 설립으로 시작된 도시건설은 오는 2015년 최종적으로 완공될 계획. 친환경적 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고 12개의 공원과 정원, 습지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개발은 조화롭고 신선한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됨.

▪ 푸트라자야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영재학교와 헬스 클리닉, 경찰서, 소방서, 주유소 등이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컨셉트로 세워짐. 또한 푸트라자야는 버스, 경전철, 해상교통, 공원형의 여객 터미널 등을 갖춘 도시내-도시간 운송 시스템과 인프라를 자랑함. 푸트라자야 마스터 플랜은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안전관리, 에너지 관리 등에 관련된 지능형 쌍방향 개념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도시통제센터'를 건설해 도시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대중 교통정보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분의 혁신을 전담할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함.

〔현장방문 사진〕













○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수도 쿠알라룸프르(Kuala Lumpur) 시청

- 일　　시 : 2012. 10. 5.(금) 09:30~
- 장　　소 : 쿠알라룸프르 시청 교통통제실 및 회의실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환경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파악,
  쿠알라룸프르 교통정책 등 주요 현황 청취 및 간담
- 도시소개

▪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혼잡하고 숨이 막힐 지경의 마천루 경쟁으로 치열한 도시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쿠알라룸프르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기능교통의 도시로 도심 주요 포인트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은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얼굴임.

▪ 도시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모노레일은 그 자체가 이미 관광 상품인데다, 관광객의 이동편의와 재미 요소를 고루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매력적인 도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음.

▪ 이 도시는 19세기 이전만 해도 동남아 정글중의 하나였으나 주석 광맥이 발견되며 쿠알라룸푸르로 무역과 주석을 캐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당시에 많은 중국 노동자와 자본들이 유입되어 현재의 거대도시로 발 돋음 하여 현재도 쿠알라룸푸르의 약 70%는 중국인임.

▪ 쿠알라룸푸르의 가장 대표적인 시티 투어 장소로는 화려한 두 개의 빌딩이 우뚝 서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로 421m 높이를 자랑하며 도시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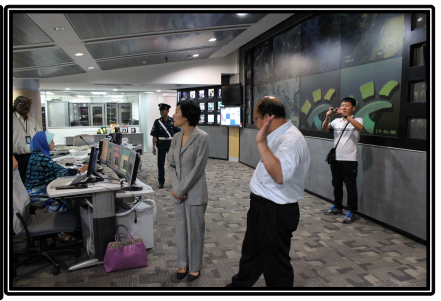
▪ 또한 이 도시에는 무어 양식의 현대적인 건축물, 전통적인 중국인 가게, 무허가 오두막, 말레이의 다양한 촌락이 존재함.

▪ 쿠알라룸푸르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첨단과 빈티지의 자연스러운 조화, 역사가 고스란히 머무르고,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레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임.

〔현장방문 사진〕

























2 싱가포르(Singapore)

○ 아동보육시설(Jamiyah Children's Home) 및 바이오폴리스

- 일　　시 : 2012. 10. 7.(일) 10:00~
- 장　　소 : 아동보육시설 견학, 바이오폴리스, 전통시장
- 주요내용 : 싱가포르 사회복지제도 파악 및 현장 견학 등
- 도시소개

▪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로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1770억$로 43위의 해당하는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임.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함.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임.

▪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싱가포르 음식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음.

▪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룸.

▪ 싱가포르는 원래 살던 말레이 민족 인구와 3대에 걸친 중국인, 이민온 인도인과 아랍인 그리고 현대에 이민오거나 현지파견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만들어 내는 복합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영국 식민지 문화와 페라나칸(Peranakan, 해협 중국인 사회)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현장방문 사진〕


Jamiyah Children's Home
15, Guillemard Crescent
Tel : 6344 6633 Fax : 6344 3333
Email : jch@jamiyah.org.sg




WE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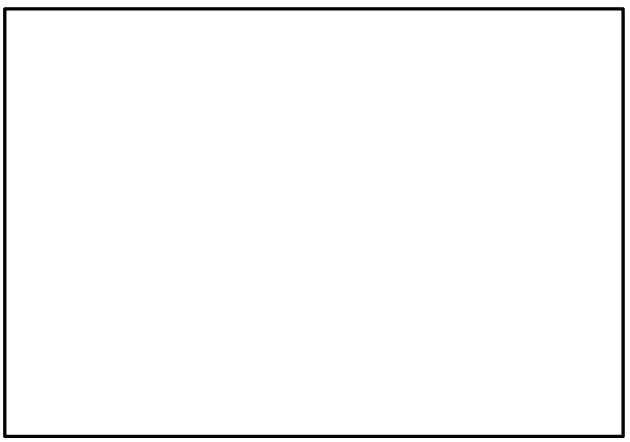

WE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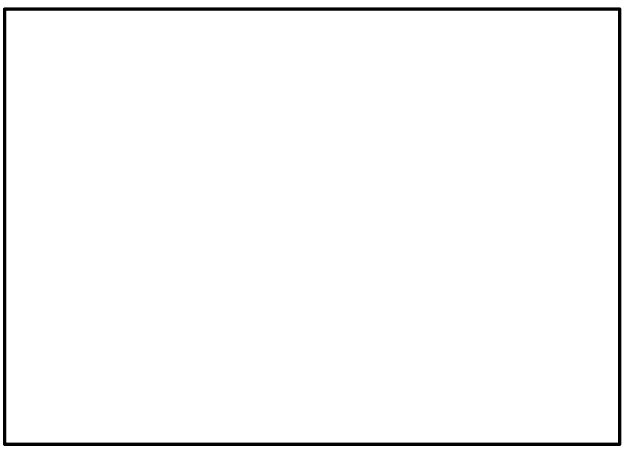

WE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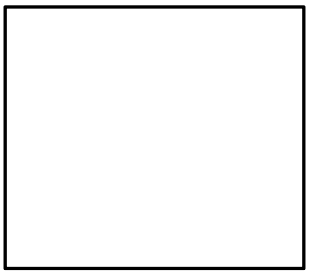


















3 말레이시아(Malaysia)의 환경정책

1.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요구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의 악화이다. 이 과정에서 악화된 가장 중요한 생태적 자원으로는 열대우림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벼, 고무나무, 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대규모 농지 확보,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 그리고, 댐 건설, 광산, 도로 건설 등으로 벌써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우 1966년 초에는 토지면적의 66%가 삼림이었는데, 1978년에는 55%, 1990년에는 47%로 줄었다. 현재 사바와 사라왁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토지 전체의 61.2% 만이 삼림이고, 삼림 가운데 54.3%는 원시림이다. 이러한 삼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야생 동식물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며,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위협받고 있다.

두번째 환경문제로는 토양침식과 오염이다. 벌목, 개간,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정리사업으로 토양침식이 심해졌고, 과도한 농약의 사용은 토양 뿐만아니라 강도 오염시켰다. 토양침식과 더불어 토지정리과정에서 강으로 토사를 비롯한 많은 고형물질이 유입되어 침니(沈泥)현상도 나타내고 있는데, 86개의 강 가운데, 41개가 심각한 침니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침니현상과 더불어 강의 오염도 심각하다. 강의 오염원은 주로 생활하수와 산업시설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인데,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양이 크게 증가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BOD, COD, TSS 등의 기준에 따르면 86개의 강 가운데 적어도 반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강이 오염됨에 따라 연근해와 바다도 오염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는 모든 강 하구가 부유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기름,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도 심하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오염이 많은 인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요 오염원은 자동차와 목재산업, 시멘트와 채석산업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쿠알라 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클랑계곡(Klang Valley) 지역이 심한데, 이곳은 대기중 총부유물질 농도가 WHO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연무(haze)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클랑계곡 지역은 이외에도 온도가 주위 보다 4-6도가 높은 열섬효과도 보이고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각종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유해 및 유독 폐기물도 심각하다. 1991년도에만 산업시설에서 380,000㎥의 유독폐기물을 생산했는데, 이것을 처리할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교적 일찍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과 행정의 면에서 대처해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환경정책의 변천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은 1974년 환경의 질에 관한 법(The Environmental Quality Act, EQA)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QA가 제정된 처음 3년 간에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 최초의 법규는 1977년에 제정되었는데, 면허에 관한 법, 야자유에 관한 법,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1978년에는 천연고무에 관한 법, 청정대기에 관한 법, 중복위반에 관한 법이 만들어 졌고, 1979년에는 하수와 산업폐수에 관한 법이, 그리고 1985년에는 자동차 휘발유에 포함된 납 성분의 통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오염문제를 반영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는 야자유와 고무폐기물이 중요한 오염문제로서 그것을 통제할 법규가 시급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해서 이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1983년에 토지침식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고, 클랑계곡 지역의 산성비 감시망이 추진되었다. 1984년에는 해변지역개발지침이 만들어지고, 유독폐기물 처분장이 지정되었으며, 東西 지역에 환경국의 지부가 설치되었다.

1974-85년 시기의 환경정책은 예방적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하부구조의 발전에 수반하는 환경문제를 치유하는 성격을 띄고 있었으며, 경제발전에 부여된 우선순위 때문에 환경보호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웠다. 종합적인 환경의 질에 관한 법과 제3차 말레이시아계획에 명시된 환경에 관한 정책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예컨대 이 정책의 수행을 담당한 환경국의 예산은 1976년에 처음 배정되었는데, 1976년의 예산은 정부예산의 0.008%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978년 예산은 정부 예산의 0.016%였다.

1985년에는 EQA가 개정되어 1986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환경오염의 통제에서 예방으로 정책적 전환을 한 것이다. 1987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명령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19가지의 활동에 대해 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19가지 활동에는 농지개발, 공항건설, 배수 및 灌漑계획, 간척사업, 어업기지 건설, 삼림개간 및 벌목, 택지 개발, 각종산업생산활동, 하부구조건설, 항구건설, 채광사업, 석유관계 건설, 발전소 건설, 채석사업, 철도건설, 전철건설, 휴양지 건설, 폐기물 처리장 건설, 용수공급을 위한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 들어 특히 문제가 된것은 대기오염으로, 1989년 환경에 관한 불만 가운데 85%가 대기오염이었던 것으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통계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가운데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대기의 질에 대한 기준의 설정 작업은 1989년에 완성되어 대기의 질의 기준 및 표준이 정해졌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가정하수로부터 나오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143지역의 하수시설을 사유화했으며, 강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우리 강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6년에는 해안관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해양오염통제 권한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었으며, 1994년에는 해양오염통제 연습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38개의 섬이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6개의 섬이 어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뿐만아니라 침식우려가 있는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다.쓰레기와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도 많은 조치가 었었는데, 1989년에는 일련의 쓰레기 처분 및 처리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3곳의 위생매립지가 새로 건설되고, 27곳의 쓰레기 처분지역이 개선되었다. 1993년에 정부는 재활용을 포함한 도시고형폐기물 처리를 사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해폐기물을 관리, 통제하기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유독화학물질의 사용, 보관, 취급, 수송, 분류 및 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다.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1994년에는 도시와 농촌 계획법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에서는 모든 계획허가신청시 환경보존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93년에는 국가삼림법이 개정되어 삼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벌목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구삼림보존지역이 확대되어 1980년대 말 12.73백만 ha(전국토의 38.6%)이던 것이 1995년에는 14.06백만ha로 증가하였다. 한편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라왁은 1.03백만 ha의 원시림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세 지역에 새로운 국립공원을 설립했으며, 사바도 생물다양성과, 담수 및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두 곳을 새롭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85-95년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전개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가하였는데, 1989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여 프레온 가스 수입금지령과 프레온가스의 방출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또 1989년에는 기후변동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정, 1993년에는 유독 및 유해물질의 국경간 이동과 처분에 관한 바젤협정에도 가입하였으며,

1992년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도 참가하였고,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최초의 의장국이었다.

말레이시아는 그 동안 6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을 펼친 결과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환경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여 그 간의 환경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자원은 고갈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966년에 EQA가 다시 개정되었다. 법의 개정과 함께 제7차 5개년계획(1996-2000)에서는 환경문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 국가환경정책(National Environmental Policy)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보존전략(The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연보존의 틀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자연자원계산체계(Natural Resource Accounting System), 전국토지정보체계(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삼림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국토의 50%는 삼림지역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구삼림지역을 확대하고, 고지, 습지 같은 중요한 서식지가 보호될 예정이다.

3.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 환경정책담당부서

환경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1975년에 설립된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국은 과학, 기술 및 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소속으로 공식적인 목적은 첫째,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건강, 번영, 안전 및 안락을 유지하는 한편, 환경의 독특성과 질을

보전하는 것, 둘째는 환경의 질에 관한 법(The Environmental Quality Act)과 그에 부수되는 법, 그리고 경제적 배타지역법(The Economic Exclusive Zone Act)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환경국 외에도 25개의 정부 부서가 환경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에 관련된 법은 40개가 넘는다.

○ 환경보호정책의 실행과 결과

말레이시아 환경정책의 실행은 母法인 환경의 질에 관한 법(Environmental Quality Act)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로 환경국 본부와 13개 지부에서 한다.

먼저 오염경감활동을 보면, 야자유 처리공장과 천연고무 처리공장이 수질이나 대기의 질 기준에 맞게 오염원을 방출하는지를 검사하고, 위반시 경고를 주거나 반복위반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한다. EQA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원의 방출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을 허용하는 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면허신청을 심사하여 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다.

쓰레기 관리는 1995년 사설회사와 계약을 맺어 통합된 쓰레기처리공장 및 매립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를 포함하여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1998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시설은 방사성 폐기물, 폭발성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회사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장소로부터 폐기물 수집과 수송도 책임지게 되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쓰레기 처리에 관한 독점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면허를 받은 기존의 매립지, 현장 처리시설, 사업단지에 건설될 종합폐수처리시설 등은 계속 현재대로 운영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국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매연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납과 벤젠 등 유해 중금속의 함유량이 적은 자동차 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다.

자연보존, 특히 삼림의 관리는 환경국이 아닌 정부의 다른 부서와 각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1993년 국가삼림법(National Forestry Act 1984)이 개정되어 삼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삼림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영구삼림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삼림을 보존하고 있는데, 1995년 말 현재 14.06백만 ha가 영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National Biodiversity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환경의 질과 관련하여, 대기의 질은 35군데의 측정소에서 총부유미립자(total suspended particulates, TSP)와 호흡할 수 있는 미립자(respirable particulates, PM10)를 측정하고 대기 중의 납 농도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변에서 측정한다. 대기의 측정 및 자료수집과 전파는 앞으로는 사설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 1995년도의 대기의 질은 PM10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권고기준인 150 ug/㎥ 이하이지만, TSP는 몇 지역에서 4년 연속으로 기준인 90 ug/㎥을 초과하였고 납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강물의 오염도는 연간 강수질 측정계획(Annual River Water Quality Monitoring Programme)에 의해 119개의 강이 측정되는데, 이 가운데 106곳의 측정소는 취수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도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물의 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질산 암모니아(NH3_N), 부유고형물질(Suspended Solids), 산도(pH)를 종합한 수질지수(WQI)로 평가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 깨끗한 강으로 분류된 강의 수는 48개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구리, 수은, 납, 철 등의 중금속이 대부분의 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근해의 바닷물도 대부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 186개소의 측정소에서 557표본을 측정한 결과 84%는 기름에 의해 오염되었고, 65%는 TSS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중금속, 예를 들면, 납,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4. 말레이시아 환경정책의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독립 후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경제성장기를 거쳐, 최근에는 제조업에 바탕을 둔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댓가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악화다. 환경보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환경문제가 주로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었다면,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이 향상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의 환경보호정책에서 공중의 환경의식과 환경교육을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 우선적인 정책적 접근과 태도는 말레이시아 환경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④ 말레이시아(Malaysia)의 사회보장제도

1. 연금

○ 공무원 연금 제도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

1951년 정부연금 조례 (1980년 연금법으로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함. 상임직 공무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인정된 봉직의 완료를 확인했다는 단서 하에 비기여식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는연 방, 주, 지방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의 고용인(employee), 판사, 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 급여를 담당함. 그러나 해당 시책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공무원들은 제외됨 이 제도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정 퇴직 연금은 최종 월급의 50%이며 연방 공무원을 위한 연금은 연방정부 총 세입에서 지급 됨. 공기업, 법정 공공 사업기관, 지방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고용인에 대하여 해당 고용인 월급의 17.5%를 기여하며 고용인 자신들은 기여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고용준비기금(EPF; Employment Provident Fund)

1969년 고용인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구(SOCSO)를 통해 고용, 상해, 질병 급여를 제공하는데 이는 두 개의 별도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 상해 제도는 1972년 시행되었으며 질병 연금 제도는 1974년에 도입되었음.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 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나 이 법은 월 당 2000링깃 이하를 버는 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됨.

일단 고용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은 수입과 관계없이 유효하고, 여기서 면제되는 주요 집단은 가사 도우미, 임시노동자, 군대 및 경찰 직원들임. 고용상해 제도를 위한 기여비율은 대략 임금의 1.25%이며 전액 고용주가 부담함. 질병연금제도를 위한 기

여비율은 임금의 1.0%이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균등하게 부담함

현재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노동자 혹은 농부 등의 급여가 낮은 일에 종사하였음. 여성 노년층 중에서 절반은 한 번도 가사외의 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노년층들에게 대부분의 수입은 즉 자녀로부터 또는 자카트(빈곤층을 돕도록 회교국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회교 과세제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Bantuan Orang Tua(노년층을 위한 원조)과 같은 공적 부조 지급 등임. 말레이시아에서는 연금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수입 보장은 비공식적인 경로, 특히 자녀로부터의 주어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근로자 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하는데, 정부 고용인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고 비공식적 부문 종사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함. 말레이시아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EPF, 고용 상해 및 질병 연금제도, 공직과 군인을 위한 노령연금제도가 있음. 그 외 연금들로는 교사준비기금(TPF:Teachers Provident Fund), 말레이시아 자산국의 직원 준비기금 (Malaysian Estates Staff Provident Fund) 그리고 소수의 법정, 민간 준비 기금들이 있음. 그러나 그 규모가 다소 작아서 말레이시아의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함.

2. 건강보험

말레이시아는 노년층의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이라는 현상에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재정 시스템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음.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들은 고용준비기금(EPF)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0%는 의료 급여를 위해 사용됨. 이 기금은 주로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정부 고용인들도 참여하고 있음.

사회보장기구(SOCSO)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근로 시민과 그 부양가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며, 민간 의료 보험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 말레이시아의 전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 보급을 위해 진행 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은 의료비용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공평성이라는 목표 를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3. 빈곤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아동들은 기존에 갖춰있던 사회보장제도로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아 오고 있음. 정부가 공급하는 보편적 혜택, 즉 몇 가지 필수적 생활용품 지원 뿐 아니라 특히 무상교육과 의료혜택은 대부분의 아동과 빈곤 가정들이 안전망의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빈곤 가정과 아동들,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보호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한 취약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포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

아동들의 장애와 발육상의 문제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 발달지체, 뇌성마비, 지능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신질환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음. 이러한 증상들은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 나은 결과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임. 지역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부에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으로 등록된 170,455명은 과소한 추계임. 아마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국제 연구들로써, 그들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10% 이상이 발육 문제를 갖고 있으며 발견되는 숫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음.

4. 노년층을 위한 공적 부조

금전적 수당과 의복, 식량 등 현물 급여뿐 아니라 기능자 훈련과 소기업 창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데, 사회복지부가 집행함. 이 제도는 엄격히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저소득이 자격 규정의 기본 결정요인이 됨. 그러나 이 급여들은 법적 책임이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척이 있는 청구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연방정부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의 액수에 한계를 설정하는데 급여는 한 가정의 총 월수입에 근거하며 월정 급여는 일인당 80링깃으로, 최대 한 가족 당 350링깃까지 지급됨. 60세 이상으로 곤궁하거나, 몸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매월 130링깃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이러한 수당들은 도시 지역의 청구인들에게 편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시골 거주민들의 무지 또는 신청서를 대도시 소재 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행정 절차 때문임.

5.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고용 준비 기금(EPF), 기여식 연금 프로그램, 산업재해 희생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보험 프로그램(SOCSO) 등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음. 경제위기 같은 충격에 대비한 최저수입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음. 공식·비공식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경제 쇼크나 자연재해 시 경제·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가 됨.

말레이시아 정부가 견실한 기초보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2008년의 경우와 같은 경제 위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취했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 모델을 구조 조정한 것으로, 제안된 신경제모델(NEM)은 국가의 경제를 재정비 하는 것이었음. 신경제모델(NEM)은 그 포괄적인 성장 목표와 접근 방법으로 인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 어떤 집단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친 빈곤적인 성격을 보이며 성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신경제모델에 따르면 그 포괄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사회가 국부에 공헌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신경제모델은 포괄적 성장의 주요 도전으로 부미푸트라(Bumiputera: 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특별한 입장과 다른 집단들의 적법한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대책들을 고안하는 것임. 말레이시아 신경제모델의 최종 목표는 일인당 GDP가 향후 10년 이내에 7,000 US 달러에서 15,000 US 달러로 상승하는 것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경제모델의 의도가 말레이시아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함. 신경제모델은 사회보장차원에서 차별철폐적인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이며 수급기준을 능력, 필요, 자격에 근거하는 것임. 기존의 정실주의를 자격에 근거한 수급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현재의 공적 부조 관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나 올바른 공적 부조를 위해 엄격한 수급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임.

5 싱가포르(Singapore)의 환경정책

1.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요구

싱가포르는 총면적 641.4㎢의 작은 나라로 주도(主島)와 6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약 300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국가다. 1819년 처음으로 영국인이 상륙한 뒤 1880년대까지 싱가포르 삼림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1959년 싱가포르가 자치국이 되고 1965년 완전히 독립된 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환경의 파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오염문제가 제기되었다. 독립당시 싱가포르는 다른 많은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실업율, 부족한 하부구조, 도시조건 악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성장 최우선의 정책을 펼쳤는데 자연자원이 없는 관계로 항구시설, 산업화,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아시아의 다른 신흥공업국, 예를 들어 한국, 대만, 홍콩에 비해 높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찍부터 싱가포르 정부가 환경문제에 눈을 떠서 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존에 힘썼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독립이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多黨의회민주주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와 유사하다. 인민행동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적 접근은 정부가 국민생활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나 시민의 복지는 잘 보호되고 있는 편이다. 환경정책은 일반적으로 한나라가 직면한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따라 우선순위와 내용이 달라지는데, 보통 오염방지, 자원(에너지 포함) 보존, 생태계(혹은 자연)보호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염방지와 자연보전의 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활용과 소비절약을 통한 자원절약과, 건물설계와 도시계획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성장을 중지한다든가 생활양식을 바꾼다든가 하는 생태주의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관리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2. 환경정책의 변천

식민지 시대의 환경정책은 초기에는 인구 증가와 개간에 따른 자연지역의 파괴를 우려하여 자연보존에 정책적 초점이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정지역에 밀집하게 되자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의 하수처리문제가 주요 정책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식민정부의 자연보존정책은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따라서 인원과 자금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은 탓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시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했을 당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과잉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 우선정책과 더불어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계획과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많은 나무를 심어 도시를 푸르게 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야생자연의 보존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연보존지역이 원래는 다섯군데였는데, 망그로브 목재이용, 저수지 개발, 생태계 악화 등으로 몇 지역이 그 크기가 줄거나 지위가 해제되었다.

1970년대의 싱가포르는 1963년부터 시작한 산업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기 때문에 오염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오염방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1970년에 이미 수상실 직속으로 반오염부서(The Anti-Pollution Unit)를 설치

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였고, 1971년에는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을 제정하였다. 한편 수질관리는 1972년에 설치된 각료급의 환경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환경부는 이외에도 위생시설, 공중보건업무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5년 독립후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 환경정책의 기본적 목적은 위생적이고 푸른 도시의 기본적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 목적은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 도시 재개발, 종합적인 하수시설 건설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일찍부터 환경오염 통제를 위한 법적, 행정적 기구의 마련도 깨끗한 환경유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보존정책은 도시발전과 경제성장정책에 밀려 성과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의 환경정책의 목적이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하부구조를 마련하는데 있었다면, 1980년대에는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성장에 수반한 새로운 도시개발과 하부구조 건설에 있어서 단순히 가능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오염방지정책에 있어서 점차 그 기준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 및 수질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도 성장하게 되어 많은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경우 엄격한 도시개발계획에 따르도록 하였다. 싱가포르를 정원도시로 만들려는 계획도 1980년대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는데, 당시의 수상 리콴유(Lee Kuan Yew)는 1980년 정원도시를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찬 녹색의 응달진 도시”로 보다 분명히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많이 심어 싱가포르를 보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도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점점 악화되는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제도면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관장하던 수상실의 반오염단위부서(Anti-Pollution Unit)가 1986년 환경부의 오염통제과(The Pollution Control Department)로 이전됨으로써 환경부가 명실공히 싱가포르의 환경문제 전반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은 1985년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대기오염을 단순히 "깨끗하지 않은 공기를 대기에 방출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대기오염통제를 담당하는 담당관을 임명하여 청정대기법과 그에 부수하는 각종 법령을 이행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싱가포르는 도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선진국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그 결과, 토지의 부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인구는 더 나은 생활의 질과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인 물리적 개발계획인 개념계획(The Concept Plan)을 재검토하였다. 이 새로운 개념계획에는 경제적 하부구조, 교통망, 주택, 녹색지대 및 수로, 사회문화시설, 환경오염통제조치 같은 토지사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2000년, 2010년 그리고 인구가 4백만이 되는 해인 X년의 3단계의 단계적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 개념계획 하에 국가환경 마스터플랜이 개정되어 환경개선, 보존 및 토지개발 같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미래의 싱가포르를 도시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환경도시로 전망하고, 이것을 위하여 "녹색과 청색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녹색의 도시를 만들려는 물리적 계획과 함께 1992년에 환경부에서는 2000년대의 싱가포르를 정원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종합적인 싱가포르 녹색계획(The Singapore Green Plan — Towardsa Model Green City)을 세웠다.

3. 환경정책의 실행과 결과

○ 환경정책의 목적과 전략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의 기본적 틀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종합적인 환경관리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은 1992년 리우의 UN환경개발회의(UNCED)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환경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고려의 우위가 드러나는데, 기본전략은 인구의 복지를 보호하는 수준에서 환경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용한 통제적, 예방적 기술, 실질적인 이행의 제약,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 경제에 대한 댓가, 그리고 관리의 장기적 목적을 고려한다. 이 전략의 핵심적 요소는 장기적 계획, 환경위협의 예방적 통제, 환경의 질의 종합적 감시, 효과적인 입법과 이행, 환경하부구조의 적절한 제공, 적절한 환경기술의 이용으로 되어 있다.

○ 환경정책담당부서

환경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1972년에 설립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관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에는 4개의 국이 있는데, 법인서비스국은 환경담당자 훈련 외에 환경부의 재정, 인사, 공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엔지니어링국은 빌딩관리, 하수와 배수,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하부구조를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정책 및 관리국에서는 국제환경정책, 오염통제, 전략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공중보건국은 주로 공중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환경문제는 주로 환경엔지니어링국과 환경정책 및 관리국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오염통제과가 핵심이다. 여기서는 환경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서의 기능만을 간략히 기술한다.

환경엔지니어링국의 배수과는 싱가포르의 배수에 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데, 주로 홍수통제를 위한 수로의 계획과 설계 및 실행을 당당하고 있다. 공무과의 주임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 개발, 관리하는 것이며,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을 관리하고, 환경부의 빌딩 및 차량관리, 그리고 환경부 내의 타 부서를 위한 기술개발도 맡고 있다. 하수도과는 싱가포르 섬 전체의 공공하수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과에서는 특히 수질오염 및 통제법(The Water Pollution and Control Act)과 규칙을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환경정책 및 관리국의 국제환경 및 정책과는 지역적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환경기술의 국제적 전파에 책임이 있으며, 환경통제과는 새로운 개발에 따르는 토지사용계획 및 빌딩통제, 대기 및 수질 오염통제, 유해물질 및 산업유독물질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 및 연구과는 장기적 계획, 정책개발 및 감시, 그리고 새로운 환경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과에서는 특히 소음관리와 대기 및 수질감시를 담당한다.

환경공중보건국의 환경보건과는 도로 등 공공장소 청소, 쓰레기 매립장 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소, 수영장의 허가 및 통제, 공중보건법의 이행, 정부 소유의 묘지 및 화장장 관리, 장의사 허가 및 통제, 고형폐기물 규제,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공중교육과는 환경 및 공중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이행,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깨끗하고 푸른 주간 캠페인, 쓰레기 최소화 운동, 깨끗한 강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 밖의 다른 과들은 식품관리, 검역, 방역, 병균 통제 등 공중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환경보호정책의 실행과 결과

싱가포르 환경보호의 기본전략은 예방, 이행, 감시로 요약된다. 오염문제는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의 현명한 위치선정, 개발과 건설계획 통제, 그리고 환경 하부구조의 제공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오염통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대기 및 수질의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통제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국가개발부의 도시재개발청이 국가계획과 개발통제를 관장하며, 싱가포르의 물리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인 개념계획(The Concept Plan)의 책임을 맡고 있다. 도시재개발청은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는 오염통제과와 협의한다. 오염통제과는 새로운 주거 및 산업개발이 적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토지사용과 어울리는지 검토하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오염통제조치가 개발계획에 통합되도록 한다.

대기오염의 방지는 청정보호법과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데,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산업시설은 입주하여 운영하기 전에 대기오염통제관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는 쓰레기를 노천에서 태우는 등의 노천방화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과 발전소는 기준에 맞도록 오염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 매연의 경우 1992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디젤사용 자동차는 UN의 유럽경제위원회 규칙(UN/ECE R24.03)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모든 석유사용 자동차는 UN/ECE R83이나 JIS78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다. 대기오염도는 12곳의 측정소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모두 WHO의 장기적 목표 권고기준과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치 내에 있다.

수질오염의 방지는 수질오염통제 및 배수법과 그 법에 부수하는 여러 시행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산업시설과 주거지가 하수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하수는 여섯 군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바다로 방류된다. 처리된 하수 가운데 일부는 재처리되어 산업용수로 사용되는데, 주롱(Jurong)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용수공급장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를 다시 처리하여 하루에 65,500㎥의 산업용수를 공급한다. 육지의 담수와 연안의 해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되는데, 담수의 경우는 pH, 산소용해량,

BOD, TSS(total suspended solids), 암모니아와 유황이, 그리고 해수의 경우에는 금속, TOC(total organic carbon),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이 검사된다.

쓰레기처리는 주로 소각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곳의 소각장에서 85%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데 발전용량이 82MW에 이른다. 거기서 나온 재와 나머지 15%의 쓰레기는 매립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1998년에 폐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완성될 섬의 매립지가 이용될 예정이다. 쓰레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년 동안에 4배가 늘었다. 증가하는 쓰레기의 처리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992년에는 쓰레기 최소화 단위부서(Waste Minimization Unit)를 설립하여 모든 부문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자연보호는 환경부의 직접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부문인데, 도시재개발청과 국립공원국의 관할이다.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섬의 5%에 해당하는 3,130ha 이상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싱가포르 녹색플랜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연지역의 감시와 유지는 국립공원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거기에 조깅이나 자전거길을 만들어 자연지역의 오락적 가치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4. 싱가포르 환경정책의 시사점

싱가포르는 가부장적 정부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로서 환경정책도 정부주도의 환경관리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적부문의 투입이 적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싱가포르 환경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싱가포르가 비교적 일찍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 이유와 결과적인 오염통제의 성공,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의

발전과정과 정부의 성격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과 경제우선주의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궁극적인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의 하나인 자연생태계 보호를 간과하게 되었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환경보호 활동과 정책에 대한 사적부문의 투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에 와서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교육을 통해 녹색소비자운동을 강조하고, 자원절약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반관반민의 환경운동기구인 전국환경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Environment)를 만들어 민간차원에서 환경의식의 고양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도한 민간단체로 풀뿌리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문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우선주의, 기술적 해결방식, 소비위주의 생활양식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은 앞으로 커다란 방향전환이 없는 한,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엽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6 싱가포르(Singapore)의 사회복지제도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전체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근로자 임금의 13%)와 근로자(임금의 20%)의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 公積金, 이하 CPF)와 고아, 극빈층, 편부모 가정 등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공공부조 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들의 보건, 주택, 교육, 노후 보장, 자산 증식 등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CPF를 통해 보장받고 있으며 기 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는 기업복지나 자주복지를 통해 해결 하고 있다.

1. 사회공동체적 합의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리관류 총리가 1959년부터 30년 넘게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 청렴결백한 정치, 행정 문화 정착 등으로 국민들이 국가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으로서 이에 아직도 사회와 집단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복지에 의존하는 인구 또는 가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력 제고에 초석임을 정부, 노조, 사용자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인식하 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운영되고 있다.

2.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극대화

싱가포르는 고전적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지는 않는다. 싱가포르 복지제도의 특징은 국민의 복지는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 및 각종 수당 제도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개인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복지,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그 한정된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교육 훈련 기회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 추구

싱가포르에서는 극히 제한된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개인의 능력 극대화를 통한 개인발전과 국가발전을 병행하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4. 싱가포르 사회보장제도 체계

○ 1차적 사회안전망

CPF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갹출금을 통해 연금, 주택, 의료, 교육비 등의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충족.

○ 2차적 사회안전망

- 최소한의 국가개입 :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를 통해 극빈가족,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활용 : 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 등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5. 싱가포르 사회복지 총괄(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개발부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 주요기능

싱가폴의 지역사회개발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지역간 관계를 개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며, 체육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임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극대

화하고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단합되고, 인정 많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부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 사회의 강화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번영이 결국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부는 모든 가정이 구성원의 건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족중심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한다.

2) 응집된 사회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번영이 다른 사람은 물론 사회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부는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통하여 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인정있는 사회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국가의 번영과 부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때에 가능하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노인복지, 청소년범죄, 그리고 사회적인 비행 등 제 사회 병리현상을 감소시킴으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4) 튼튼한 사회

지역사회개발부는 싱가폴스포츠위원회(Singapore Sports Council)를 통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를 위한 여가선용 및 스포츠를 장려한다. 특히 '모든 이에게 스포츠를'("Sports For All")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우수한 스포츠선수를 양성하는 계획(SPEX2000: Sports Excellence 2000)에 따라 대외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직구성 및 주요업무**

지역사회개발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는 5개의 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행정국(Administration Division)

행정국은 공무원들이 지역사회개발부의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개발부의 인력관리 정책은 모든 공무원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훈련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국은 또한 지역사회개발부의 생산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현재 지역 사회개발부가 수행 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WITs(Work Improvement Teams), SSS(Staff Suggestion Scheme), PCIP(Public Contact Improvement Programme), 그리고 QSP(Quality Service Programme)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에게 협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가족개발국(Family Development Division)

가족개발국은 가정생활과 가치를 증진하고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가족개발국은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증진시킨다. 가족의 활동과 일상생활을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관이 각 가정에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가족개발국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정부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사회개발부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정과 노인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Family and the

Aged)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를 대표하여 모든 가족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시책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3) 가족지원국(Family Support Division)

가족지원국은 모든 사회문제를 가족중심적인 접근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개개인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연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족지원국은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개인은 물론 가족전체를 도와주고, 다양한 사회범죄, 청소년범죄, 비행 등 제반 사회문제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4) 연구전산국(Research and Computer Division)

연구전산국은 일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개발부가 정책수립 및 기획을 위하여 사회현상과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전산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사회개발부의 관할하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 처리, 제공해 주고 있다.

5) 지역사회업무국(Community Affairs Division)

지역사회업무국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자율적인 조직과 상호부조조직, 그리고 상호협조를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업무국은 주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연계의 중심적인 매체로서 활동한다. 또한 지역사회개발부의 인력관리를 감독하고 공무원들이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와 개발이 가능하도록한다.

○ **독립행정기관(Statutory Boards)**

싱가폴 지역사회개발부 산하에는 4개의 독립행정기관이 있다.

1) 국민협회(People's Association)

싱가폴의 국민협회는 대중적인 조직으로서 교육, 사회, 문화, 스

포츠, 여가선용 및 지역활동에 있어서 대중적인 참여를 통하여 인종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2) 이슬람협회(Majlis Ugama Islam Singapura)

싱가폴의 이슬람협회(MUIS, 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로 알려져 있는 이 조직은 1968년 이슬람법(Administration of Muslim Law Act)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이슬람협회는 싱가폴 대통령에게 싱가폴 내에서의 이슬람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싱가폴스포츠협회(Singapore Sports Council)

싱가폴스포츠협회는 싱가폴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직이다. 1971년 2월에 설립된 국가스포츠진흥위원회(National Sports Promotion Board)와 같은 해 설립된 국가경기장공단(National Stadium Corporation)이 1973년 10월 1일 합쳐져 현재의 싱가폴스포츠협회가 탄생 되었다. 싱가폴스포츠협회는 "Sports For All"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민 각자가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구비 및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SPEX 2000(Sports Excellence 2000)계획에 따라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체육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연간 1천만 싱가폴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유망선수 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사회봉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봉사협의회는 1992년 제정된 사회봉사법(NCSS Act)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200여개의 자발적인 복지조직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개발, 증진하며 자발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약 214개의 조직이 노인, 장애자, 어린이, 청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4장 연수후기

□ 동남아 연수를 마치며..



○ 고 영 규 환경복지위원장

해외 연수를 준비할 무렵, 도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에 반하여 장기적인 경제 위기로 많은 도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에 외유성 또는 낭비성 해외 연수를 가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의 비판도 있었다.

연수국과 일정이 결정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10월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 다녀오는 것 이었다. 후반기 상임위 소속 위원이 결정된 후 별도의 재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장소가 없었다.

방문국을 사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 현황이나 주요정세, 복지환경 정책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전문위원실에 지시하였다.

처음 위원회 간담회에서 해외연수를 동남아로 선정할 때만 하여도 반신반의 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러한 기우는 모두 없어졌다. 정말 연수를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6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기에 몸을 실어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공항에 도착 “아빠까봐”(안녕하세요), “뜨리막가세”(감사합니다)를 배우면서 숙소에 도착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수 첫날을 마무리하였다.

연수 2일차 우리나라 참여정부 시절 많은 행정가들이 이곳을 방문 세종시를 구상하였다는 푸트라자야 시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우리

일행은 Putrajaja Structure Plan 2025, Putrajaja Green Plan 2025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하티르 수상이 1991년 “비전2020”이라는 국가 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신행정수를 건설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수상청을 이전하고 다른 행정, 사법부를 이전시켰다는 말에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 일행은 프랑스 개선문을 본 따서 만든 시청 엘리베이터를 타고 브리핑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시청 기획팀장의 브리핑을 받으면서 우리 일행들은 인공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였다. 호수의 물을 습지에 통과시켜 자연적으로 정화하고 있다는 설명과 점심식사 때 호수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는 인부를 보면서 호수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는 구나 생각을 하였다.

1996년도 신도시 건설을 시작 4,931헥타에 인구 79,4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청사, 공공위락시설, 사회기반시설, 주거지역, 습지대, 공원들이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인상 깊었다.

수상이 직접 지휘하였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은 반대는 없었는지, 당초 6개 지역을 예비지역으로 정하고 최종 푸트라자야가 선정되었다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현재로서 해결하여야 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정치적인 반대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초 교통수단으로 차량 30%, 모노레일 70%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주차장이 모자라며, 국민들도 푸드라자야를 잘 몰라 관광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개발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로 투입될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하여 묻자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여 준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말레이시아 주정부가 그리 돈이 많은 나라인지 의구심도 들었다.

연수 3일차 오전에 쿠알라룸푸르 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로비에서 관계자를 만나 시내 교통 통제실을 들러본 후 회의장으로 이동 Kuala Lumpur Structure Plan 2020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청 관계자의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듣고, 공공주택 지급기준이나 규모,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묻고, 정부청사의 푸트라자야 이주 후 도심 공동화 현상은 없는지 추가 질문을 하였다. 결혼한 커플이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경우 우선권을 주며, 10평에서 18평정도의 임대아파트를 현재 34,000세대 공급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수 4일차 말레이시아를 떠나 육로를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입국시 담배는 19개비 이하, 술은 절대 금지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모두들 다시 짐을 정리하였다. 싱가포르 입국장에서는 검색요원들의 철저한 가방 조사와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를 일반적으로 가든시티, 크린시티, 파인시티라고 부른다고 한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국토의 40%가 공원으로 이루어지고, 47년의 작은 역사지만 부정부패가 없으며, 주택의 80%가 정부 아파트로 이루어졌다니 공감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적도 근처에 위치...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65년 처음 말레이시아 주정부에서 독립하여 우리나라 서울시보다 약간 큰 면적의 나라가 생기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심각한 오염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한다.

수상과 국민들은 나라를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 가든시티, 크린시티에 1인당 GDP 5만불 시대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그러한 모습들을 시내 투어와 방문일정을 보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연수 마지막날 우리나라 보육원 시설과 비슷한 Jamiyah Children's Home을 방문하였다. 시설에 입소된 아이들은 고아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입소된 아이들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라 그런지 무척 깨끗해 보였으며, 시설 입소시 자체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와 개인이 4:1의 비율로 재원을 마련 운영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였으며 우리일행을 정말로 따뜻하게 반겨주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종간의 차이를 떠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 컴퓨터실이 만들어지고, 한인교회에서도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인들이 의로운 일은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설 방문 후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복합연구단지 바이오폴리스를 견학하고 우리는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곳에서 연구와 제품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우수한 두뇌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금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다.

18개 부족의 원주민이 살고, 말레이계·중국계·인도계 등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치안이 아시아권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지만 불교·힌두교 등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며, 타 종교를 존중하고 있는 나라!
1인당 GDP가 9,700불 밖에 되지 않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높은 나라!
주정부의 주왕이 돌아가면서 국왕을 하고 있으며, 수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수상의 대우가 높은 나라!

말레이시아를 몰랐을 때의 생각과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연중 여름기온에 기름, 고무, 주석 등

자원이 풍부하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없는 축복받은 땅이라 강대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지배를 받다가 195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라로만 인식하였다.

직접 와서 보니 입헌군주제에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도 일찍 수립되었고 교역량도 많았다. 도심 한복판에 모노레일을 설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행정도시를 새로이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등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이 돋보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건설회사가 지은 쌍둥이 빌딩으로 도시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시내에 18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도심속 공원을 조성한 쿠알라룸푸르 방문은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국제 수상대회를 치를 정도의 인공호수를 만들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푸트라자야 신행정 수도의 환경관리 정책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작지만 강하고 깨끗한 나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싱가포르 방문도 정말로 의미 있는 연수였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비록 짧은 연수기간 이었지만 환경과 복지를 테마로 구상한 질 높은 동남아 연수가 되었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금번 해외연수에 기관방문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외교통상부 황유경 서기관,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원갑 서기관, 전라북도 대외소통국 김연지 주무관께 감사드리며 연수기를 마감하고자 한다.